

출장보고서

I. 출장개요

1. 출장자: 채욱 원장
2. 출장기간: 2011년 6월 25일 ~ 6월 27일(2박 3일)
3. 출장지: 중국 북경
4. 출장목적: 제2차 Global Think Tank Summit 참석
5. 출장일정:

일자	행선지	활동사항
6월 25일 (토)	서울-북경	북경도착, Summit 참석
6월 26일 (일)	북경	Summit 참석 발표
6월 27일 (월)	북경-서울	서울 도착

II. 활동 내용

-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가 주최하는 제2차 Global Think Tank Summit에 참석하여 세계 주요 인사와 교류하고 Guest speaker로서 G20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함.

- 주제 : Global Economic Governance : Common Responsibility

- 25일 Summit 개막식에는 리커창 부총리, 키신저 등 주요 인사 및 각국 연구기관장, 중국 국내외 학자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채욱 원장은 26일 개최된 본 회의에서 Guest speaker로서 G20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

- <제1세션> 세계경제 현황과 인플레이션 통제를 주제로 2개의 Sub-forumdml 형식으로 개최 (경제현황과 전망, 인플레이션 동향과 해결방안)
- <제2세션> G20와 IMF 체제 개혁의 주제아래 2개의 Sub-forum 형태로 진행 (Global Governance에서 G20의 역할, IMF 개혁)

III. Summit 발표자의 주요 발표 내용

1. 개막식 (2011년 6월 25일 토요일)

□ Li Ke Qiang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강화가 세계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재정금융 체계의 완비는 금융위기의 근원을 제거하는 핵심임. 그리고 경제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계하여야 하며,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반드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이 유지되어야 함. 또한 남북 발전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가 오랫동안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향후 5년간, 중국은 과학발전을 주 바탕으로, 경제발전 방식의 신속한 전환을 주선으로,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주 방향으로 하여 과학기술의 혁신을 추진하고 개혁개방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제를 추진할 것임. 이를 위해, 발전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수요 확대와 녹색발전 추진에 주력할 것임.

□ Dr. Henry Alfred KISSINGER

(Chairman of Kissinger Associates, Former U.S. Secretary of State)

- 현재 유럽 국가는 채무위기를 겪고 있으며 채무위기에는 많은 요인이 있으므로 기타 각 방면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그리고 향후 글로벌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유럽은 경제문제와 정치체제 그리고 기

구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유럽 각 국가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여야 함.

-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체로 GDP측면에서 10~20년 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체가 될 것임. 또한 중국은 최대의 채권국으로 중국이 발휘하는 작용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미국경제의 진흥에 매우 중요함. 이러한 중미간의 협력동반관계는 글로벌화의 기초이며 국제체계에서 중요한 요소임.
- 공동의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래의 도전에 공동으로 직면할 것인지 등 협력에 근거하여 국제체계를 조정하여 국제적인 프레임하에서 모든 국가가 바라는 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 Lord John PRESCOTT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of UK)

- 글로벌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실현하고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간의 격차를 해소하여야 함. 국제 형세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최대의 공통된 인식이 필요하며 중국은 유럽의 가장 좋은 파트너로 글로벌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으로 글로벌 금융, 무역, 지속가능 발전, 기후변화 등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여야 함.
- 글로벌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국제기후변화에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모든 협의가 중시되어야 하며,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잘 대처하여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Grzegorz W. KOLODKO

(Director of Transformation, Integration and Globalization Economic Research (TIGER),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of Poland)

- 글로벌화는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 세계의 시장이 일체화 되고 상호의존적이 되어가면서 한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호의존을 더욱 중시해야 함.

-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는 신자유주의의 결과로 결국 신자유주의에서 기원한 것임. 이러한 자유주의는 사실상 실패한 것임. 반면 중국은 매우 성공한 국가로 중국의 성장방식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이러한 성공은 좋은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
- 현재의 경제는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학제적(서로 다른 학문 분야와의 제휴) 사고 만이 더욱 많은 것을 이해하도록 할 것이며 더욱 많은 균형을 얻도록 할 것임.

□ NIKAI Toshihiro

(Former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

- 올해 대 지진으로 일본 경제는 약 16~25만억 엔화의 손해를 봤으며, 특히 지진지역이 부속품 생산과 원재료 생산지역으로 국내외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만 경제산업과 경제활동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음. 정부는 전제품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해외시장의 판매루트를 개척할 것임.
-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중국과 일본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협의서를 작성하였음. 이와 같은 일본과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협력은 아시아지역의 에너지 환경문제에도 큰 공헌을 할 것임.

□ Essop Goolam PAHAD

(Founder of *The Thinker* (Monthly Magazine), Former Minister in the Presidency of the Republic, South Africa)

- G20은 국제경제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국제무역, 국제시장, 국제투자, 글로벌 경제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임.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토지면적, 인구수 및 지리적 위치와 정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나이지리아가 G20에 참여한다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어 더욱 풍

부한 부를 가져올 것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내저축 문화를 형성하여야 하고, G20 특히 신진국은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여 아프리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함. 그리고 농촌지역의 농업생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이들 국가가 식량생산방면에서 자급자족하고 많은 제품의 수출을 추진하도록 도와야 함.
- 최근 코트디부아르와 리비아에 대한 많은 외국국가의 개입은 아프리카 연맹과 상의 없이 개입된 것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임. 결국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단결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젊은 층의 단결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시대를 실현할 것임.

□ SHA Zukang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Under-Secretary-General for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경제사회의 발전, 평화, 안전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화와 안전만 중요하고 사회의 경제의 발전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공평사회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봄. G20의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전 세계의 쇠퇴를 면할 수 있었지만 세계 많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타 172개의 유엔 가입국(대부분 중소 국가)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어 글로벌 경제정책 포용성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음. 이러한 이유로 유엔총회에서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켰고 본 결의는 포용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다각주의를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핵심 작용에 대하여 재차 표명하였음.
- G20, G7이 글로벌적인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를 대표할 때 G20, G7에 대한 합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반드시 유엔이 갖추고 있는 조건, 즉 1) 각 나라 특히 후진국의 발언권을 확보, 2) 긴급한 상황에서 고효율의 정책 협조, 3) 광범위하고 포용을 근거로

한 합법성을 갖추어야 함.

- 효율적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길을 탐색하여 현재의 국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형평성, 대표성, 관련성을 확보하고 각 기구가 상부상조하여 지속가능 발전의 3대 지주인 경제, 사회, 환경을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함.

□ TANAKA Nobuo

(Executive Director of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중국과 IEA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향후 중국은 경제발전과 완만한 인구증가로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 것임.
- 향후 중국은 IEA에 가입하여 함.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은 에너지 안전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전 국가의 경제에 모두 유익할 것이며 중국의 IEA 가입으로 리비아의 형세가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둘째, 공개적인 회의, 특히 에너지 지속가능 정책 결정과 같은 회의의 참여는 향후 지속가능 발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셋째, IEA가 통계, 에너지, 에너지 절약 등 방면에서 진보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에너지의 안전과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동시에 IEA가 중국의 진보적인 경험을 기타 국가에 응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임. 넷째,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의 에너지 경제의 모델 전환을 표현하는 것으로 IEA가 중국과 같이 흥기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의 동등한 동반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임.

2. Main Forum (2011년 6월 26일 일요일)

<세션 1> 경제 형세와 인플레이션 통제

(Sub-session 1) Economic Situation and Outlook

□ Paola SUBACCHI

(Research Direct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s, The Chatham House, UK)

- 현재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향후 세계 경제가 매우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반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음.
- 세계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를 이겨내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심을 유지해야 하며 금융분야에 존재하는 내부 취약성을 해결하고 경제의 거품 문제를 잘 관리하여야 함.

□ TANIKAWA Shiro

(Executive Council Member,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Japan)

- 일본의 경제는 2011년~2012년 빠르게 회복할 것이며 전력부족이 공업에 미치는 영향, 일부 새로운 경쟁업종, 금융 불안정 해소 등을 반드시 중요 시해야 함.

□ Uri DADUSH

(Senior Associat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각 나라의 정치와 경제적인 요인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외환보유액으로 국제적인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중국의 흥기는 세계 경제의 동력과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향후 문제의 근원이 될 수도 있음.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자 최대의 수출국으로써 인민폐를 더욱 국제화 시켜 금융체계를 개혁하여야만 향후 외부 충격에 대하여 중국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임.

□ ZHENG Xinli

(Permanent Vice Chairman, CCIEE)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공동의 노력으로 회복하였지만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세계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가져왔음. 더불어 유럽, 일본주권 채무의 어려움으로 실물경제가 더욱 어려

워졌지만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미를 대표로 한 신흥경제국은 발전을 보임.

- 중국의 수입확대, 소비확대, 외환보유액의 해외투자가 전 세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최대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브릭스 국가와 기타 개발도상국가 및 선진국이 상호 협력하면 전 세계의 경제가 안정될 것이며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Sub-session 2) Inflation Trend and Solutions

□ Debapriya BHATTACHARYA

(Executive Director, Centre for Policy Dialogue, Former Ambassador of Bangladesh to WTO and UN Office in Geneva)

- 2008년 일부 개발도상국은 리스크와 식량과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많은 후진국은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도전에 직면하였음. 이와 동시에 후진국은 금융위기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속도 완화, 예산 부족으로 인한 낮은 발전원조액으로 2011, 2012년 발전속도가 감소할 것임. 그러므로 후진국에 관심을 갖고 국가가 조속히 재정 긴축정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곧 열릴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리스크, 그 원인,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임.

□ GU Yuanyang

(Former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and also member of the academic committee, CASS)

- 매우 높은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 각 주요 화폐의 환율 악화, 국제 대량상품 가격 상승, 주권채무 증가와 위기 지속, 무역과 투자마찰, 글로벌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등 이러한 위기와 도전이 세계경제의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Bart van ARK

(Senior Vice President and Chief Economist, the Conference Board Inc.)

- 미국, 기업계 및 금융계와 같이 발달한 경제체는 세계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이와 동시에 중국의 12.5규획 및 거시경제의 발전이 다국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임.

□ ZHENG Yongnian

(Director, East Asian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현재 중국의 부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중국의 기업가의 외국으로의 이민이 급증하고 있음. 이는 결국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산층을 확대시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방책이 될 것임.

□ Rolf KETZLER

(Advisor,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 독일은 경제쇠퇴위기와 문제 및 유럽의 주권채무 문제에 직면하여 재정방면의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함. 독일은 교육 및 기타 과학기술 분야에 많은 투자가 필요함. 특히 기술형 노동자 부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취업시장의 경쟁력을 강화, 즉 혁신과 창업을 장려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을 회복시켜야 함.

□ XIAO Geng

(Director of Columbia Global Center for East Asia)

- 신흥시장국가는 공업화와 도시화를 위한 자금이 매우 필요하지만 이들 국가의 이자율이 매우 낮음.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가 바로 신흥국가의 이자율이 매우 낮아 도시화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임.

□ WANG Jian

- 중국은 여전히 개혁개방 중으로 컬러 TV 산업, 고속철도 산업, 자동차 산업의 발전 역시 개혁개방 중 자주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중국의 금융체계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봄. 이유: 중국의 이자율은 국제사회와 비교하여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음.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

서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경제성장 역시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으면 화폐가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 통제할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 이와 반대로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달러와 유로화와의 차이가 커지면서 중국의 이자율이 더 높아지며 중국과 국제사회의 격차가 증가하게 됨. 중국의 외환보유액의 증가는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져오면서 인민폐 절상의 압박을 증가시킴.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인민폐환율의 형성메커니즘을 바꿔야 하고 더욱 탄력성을 갖도록 해야 함 양방향 변동을 실시해야 함.

□ Sean RANDOLPH

(President & CEO of the San Francisco Bay Area Council Economic Institute, USA)

- 현재는 인재의 유실이 아닌, 인재의 유동(이동) 시대이며 자금 역시 유동의 시대임. 이러한 유동의 자유성을 확보하기 위해 핫머니 유동에 대한 경제심을 늦춰서는 안됨.

□ K.C. SIVARAMAKRISHNAN

(Chairman of Center for Research Policy of India, Former Secretary to Government of India)

- 전 세계 경제발전의 목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Lawrence J. LAU

(Chairman, CIC International (Hong Kong) Co., Ltd. Professor of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Executive Vice Chairman of CCIEE)

-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는 장기적인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에 있음.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농산물과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장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단기적인 물가상승이 장기적인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그리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생산력을 높여야 함.

- 정부의 비축, 구매, 판매 행위를 통한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수단 제공, 인민폐 절상을 이용한 수입 확대와 관세 감세 등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킬 수 있음.

□ LI Yining

(Professor of Peking University)

- 중국식의 화폐유통량의 정상 수준을 논하기 위해 선진국의 경험을 위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업의 규모가 다양하므로 중국의 경제구조가 중국 화폐유통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 화폐유통량의 정상적인 수준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미시, 거시적 분야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의 향후 기대 수익을 소홀히 하고 실업률이 증가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음.

□ Robert W. POOLE

(Vice President of US-China Business Council)

-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경영할 시 주요 고려하는 사항은 노동력 원가, 원재료 원가,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이나 현재 중국의 노동력 원가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미국의 많은 기업이 발전이 비교적 빠른 서부지역에 투자를 할 계획임.

□ CHI Fulin

(President, China Institute for Reform and Development)

- 중국은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국가로 중국의 인플레이션 통제는 개혁 측면에서 3가지 문제가 있음. 첫째, 지방정부의 12.5 기간 목표 달성은 원재료, 에너지, 대량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중장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인플레이션 통제를 어렵게 할 것임. 둘째, 효율적인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경제성장 방식을 신속히 투자위주에서 소비위주로 전환하여야 함. 셋째, 장기적인 투자의 팽창은 정부주도형의 경제성장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방식은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임.

□ TOYODA Masakazu

(Chairman & CEO of the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

- 에너지와 석유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보면 리비아 위기이후에도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석유 수출국의 충분한 공급량과 수요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정치적인 요인으로 석유값이 상승한다고 봄. 그러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석유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상승요인을 분석하여야 함.

□ Mohamed SAQIB

(Secretary General of India-China Economic and Cultural Council)

- 인도는 강력한 경제관리와 정치염원이 필요함.

□ XIAO Geng

(Director of Columbia Global Center for East Asia)

- 전통 경제학에서 보면 중국은 재정적자가 없고,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수출이 수입보다 크므로 가격 상승의 압력이 없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음. 중국의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은 구조적 임금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는 전통 경제학에서 분석한 적이 없음.
-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5~7%로 매우 높음.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는 구조적 인플레이션하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 마이너스 금리가 투자를 확대시켰기 때문임. 결국 마이너스 금리가 가난한 자의 예금을 부유한 자의 투자를 도왔다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금리를 높이고(대출규모를 축소해서는 안됨.) 높은 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재정투자를 통해 해결해야 함.

□ Uri Dadush

-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5~10%의 인플레이션이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므로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어느 정도의 가격상승과 변화는 인정을 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그 변화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음. 임금 상승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현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크게 보아 시장과 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에게 있는 좋은 신호임.

□ Debapriya BHATTACHARYA

(Executive Director, Centre for Policy Dialogue, Former Ambassador of Bangladesh to WTO and UN office in Geneva)

- 가장 후진국의 인플레이션은 높지 않지만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은 식량가격의 상승에서 초래되며 식량가격은 석유와 연료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글로벌 무역체계 중 양식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대부분 공급문제와 과거 많은 국가에서 실시한 식량수입 제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후진국은 단기적으로 양식 수입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봄.

□ GU Yuanyang

(Former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and also member of the academic committee, CASS)

-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위기 이전의 4%보다 높음. 인플레이션 억제 시 투기 행위를 견제하여야 하고 신흥경제체는 핫머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함.

□ Bart van ARK

(Senior Vice President and Chief Economist, the Conference Board Inc.)

-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생산력에 대한 감독관리를 분석하여야 함. 혁신과 과학기술 방면의 투자는 확실히 필요하지만 이 역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혁신 역시 새로운 부정적인 요인을 가져올 수 있음. 중국이 민영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어떻게 생산력을 증가시키는지 지켜보아야 함.

<세션 2> G20 and the Reform of IMF System

□ Thomas BERNES

(Executive Director, (CIGI),Canada)

- G20은 현재 중요한 시기로 국제경제는 이미 위기를 겪은 바 있으며 지도층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적 조치를 실시하여 세계경제의 심각한 경제 쇠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일련의 조치로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음.
- 금융위 안정성을 촉진하는 것이 G20에 매우 중요함. 많은 은행이 글로벌 경영에서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감독관리 방안을 개혁하여야 함.
- 이 시대는 도전적인 시대로 공동의 다양한 회의를 통해 많은 도전을 해결하여야 함. 지도층의 참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함. 내년 미국, 프랑스, 독일, 멕시코는 대선이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지도층이 바뀌는데 이는 G20에 영향을 미칠 것임.

□ Vladimir KNYAKININ

(Director of Center for Strategic Research, North-West Foundation, Russia)

- 일본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은 전 세계가 관리 메커니즘을 건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핵심의 통제메커니즘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각 나라의 사정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려움.
- 국제적이고 글로벌적인 거버넌스회의가 글로벌 에너지 문제를 토의하는 주요 포럼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에 관한 중요한 책략을 가지고 있어야 함.

□ Myron BRILLIANT

(Senior Vice President of US Chamber of Commerce)

-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으로 진전이 있었지만 환율정책, 자본통제, 운용방면에서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하며 경제 불균형 측면에서 더욱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함. 글로벌 시장의 협력성 결의 측면에서 아직 많은 사항이 요구되며 시스템성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IMF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봄.

□ CHAE Wook

(Chairma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G20은 주요 경제포럼의 기능을 발휘하고 글로벌 협력자, 감독자가 되어 경제의 안정을 추진해야 함.
- 그 동안 G20은 매우 느슨한 조직기구로 매년 사무국이 처리해야 할 일을 의장국에서 담당하였고, 매년 의장국 역시 바뀌었으며 포럼 어젠다를 공동으로 결정하였음. 이러한 조직이 관료 메커니즘과 형식주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많은 단점이 있음.
- G20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년제 어젠다 설립과 메커니즘화의 설립이 필요하며 G20의 영구적인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이 매년 정상회담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봄.

□ Martin LEES

(Former Secretary General and Senior Advisor to the Secretary General, Club of Rome, Switzerland)

- 현재 우리는 시스템적인 리스크와 문제에 직면하였고 일부 국가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역시 중요함.
- 오늘날 세계 경제와 금융은 "대 변화, 대 조정"에 있으며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있어 경제금융국면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잘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 그러기 위해서 20년대 이후의 역사를 잘 회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과 금융 개혁이 정치 안정에 매우 중요하며 중국이 이 방면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에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것임.

□ Steve HOWARD

(Secretary-General, Global Foundation of Australia)

- 위기는 새로운 세계 균형과 새로운 구조를 형성함.
- G20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경제의 다변화를 반영하였고 이는 국제사무의 방식을 대표하고 있음. 그러므로 사무국을 설립하여야 하고 기업, 국민 등 광범위한 계층이 G20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

홍국가가 국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IMF가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Yang Yuanqing

- 현재 다변화의 세계를 맞이하여 국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하고, 모든 국가의 발전계획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점이 되어야 함.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게 더욱 많은 발언권을 주어야 하며 IMF와 세계은행 총재를 선출이 더욱 투명해져야 함.